

『註解傷寒論』에 대한 연구

김진호 ·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Study on 『Zhujieshanghanlun』

Jin Ho Kim, Jung Kyun Bang*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Zhujieshanghanlun(註解傷寒論)』 are some particular points as below ; First, set up the concepts of chuanjing (傳經), zaichuanjing(再傳經), and guojing(過經). Second, suggested the half exterior and half interior syndrome(半表半裏證) firstly. The third, understood origin literature by the distinguished way for syndrome in accordance with the Yin and Yang(陰陽). Forth, wangyang(亡陽) is described by two different syndromes. One is with perspiration. The other is yangxuzheng(陽虛證) from injured yangqi(陽氣). Fifth, xialbiannongxue(下利便膿血) was distinguished by the generic characters of The Cold and Hot(寒·熱). The last, 『Shanghanlun』 (傷寒論) was described at the view of viscera & bowels's physiology and their pathology. And shaoyin(少陰) disease was aware of kidney case and Taiyin(太陰) disease was aware of spleen case. There are two different cases of bowel diseases. One is that xieqi(邪氣) goes in stomach of Yangming(陽明). The other is that xieqi(邪氣) follows channel and goes into bowel.

Key words : Zhujieshanghanlun(註解傷寒論), the half exterior and half interior syndrome(半表半裏證), wangyang(亡陽)

서론

漢·張機의 著作으로 알려진 『傷寒論』은 韓醫學의 初有의 임상의학 전문서적임과 동시에 辨證論治의 기초가 된다. 원래는 『傷寒雜病論¹⁾』의 일부분이었으나 王叔和에 의해 정리되면서 『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흔히 접하는 『傷寒論』에 관한 풍부한 내용들이 이때부터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傷寒論』이 西晉·王叔和에 의해 정리되기는 하였지만 隋·唐·五代에 이르기까지 그 보급은 그리 폭넓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宋代를 거치면서 北宋·成無己에 의해 최초로 『傷寒論』 전반에 걸쳐 註釋이 더해졌고, 이를 계기로 後代 의가들의 『傷寒論』에 대한 이해와 응용 및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로부터 傷寒學派가 형성되어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시대에 따른 『傷寒論』의 전체적인 발전과정 중에 成無己의 註釋은 그 자체의 완성도와 깊이 및 是非를 떠나 後代 의가들이 밝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며, 傷寒學 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傷寒論』에 관한 국내의 번역서를 살펴보면 보면 蔡仁植의 『傷寒論譯註²⁾』, 廉泰煥의 『仲景方類聚』, 朴憲在의 『傷寒論概論-六經證治概論-』 등³⁾을 필두로 하여 이중화의 『傷寒論註釋⁴⁾』, 崔達永의 『傷寒論釋講⁵⁾』, 尹暢烈·申榮日·金善鎬의 『柯氏傷寒論註⁶⁾』, 민족의학연구소 고전연구실의 『傷寒論釋義⁷⁾』, 이원철·김지형의 『傷寒疎解⁸⁾』, 趙學俊의 『傷寒貫珠集⁹⁾』, 박병희의 『臨床應用 傷寒論解說¹⁰⁾』, 변성희·김상찬의 『圖說 傷寒論¹¹⁾』 등등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傷寒學 관련 서적들이 번역되었고 또한 연구되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註解傷寒論』에 대한 전체적인 번역은 이루어지지 않았

* 교신저자 : 방정균,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bjkdcw@sangji.ac.kr, · Tel : 033-730-0666

· 접수 : 2007/01/22 · 채택 : 2007/03/16

- 1) 김용욱은 『註解傷寒論十卷』의 解題에서 雜字는 잘못이고 卒字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 진위여부를 떠나 통상적인 사용에 준하여 표기하였다. (張仲景 著, 金容沃 解題, 註解傷寒論十卷, 서울, 통나무, 1996. pp. 3-4.)
- 2) 1971년 3월 13일 初版發行되었다.
- 3) 한국한의학사 재정립-하. 한국한의학연구소. 1995. p. 228.
- 4) 이중화 編著. 傷寒論註釋. 서울, 계축문화사. 1995.
- 5) 崔達永 編著. 傷寒論釋講. 서울, 대성문화사. 1995.
- 6) 尹暢烈, 申榮日, 金善鎬 編譯. 柯氏傷寒論. 대전, 주민출판사. 1999.
- 7) 民族醫學研究所 古典研究室 譯. 傷寒論釋義. 서울, 여강출판사. 2001.
- 8) 이원철, 김지형 編著. 傷寒疎解. 서울, 정담, 2003.
- 9) 趙學俊 編譯. 傷寒貫珠集. 대전, 주민출판사. 2003.
- 10) 박병희 譯. 臨床應用 傷寒論解說. 의학출판사. 2004.
- 11) 변성희, 김상찬 옮김. 圖說 傷寒論. 서울, 전파과학사. 2006.

고, 다른 번역서들의 내용 또한 條文과 六經病을 중심으로 한 것이 많았다.

한편 중국에서는 『傷寒論』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成無己의 『註解傷寒論』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본 논문에서 참고한 張國駿의 『成無己醫學全書¹²⁾』가 국내에 들어와 있고, 論文들로는 錢超塵의 「『傷寒論注解』元刊本及成無己考¹³⁾」, 黃春麗·陳竹友의 「成無己訓釋『傷寒論』的特色¹⁴⁾」, 田思勝·高萍의 「試論成無己注釋『傷寒論』的特點與方法¹⁵⁾」, 尹桂平의 「淺析成無己『注解傷寒論』學術思想對後世的影響¹⁶⁾」, 李玉清的 「『注解傷寒論』釋誤考¹⁷⁾」와 「試析成無己闡釋『傷寒論』的辨證思維方法¹⁸⁾」과 「成無己『注解傷寒論』腑病說對後世影響簡考¹⁹⁾」 등이 있다. 이러한 서적과 논문들의 내용은 成無己의 고향인 聊攝이 금에 속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서부터 그가 금에서 어느 지역에 머물렀으며 언제 著作하였고 著作들이 언제 刊刻되었으며, 生卒年代와 『註解傷寒論』의 특징 및 책이 일본으로 유입된 시기 등에 대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注釋의 특징과 방법, 잘못된 注釋에 대한 고찰, 후세에 미친 영향, 辨證의 사유체계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실로 다방면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註解傷寒論』의 의학적 가치와 국내의 정황을 감안하여 論者は 『註解傷寒論』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을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본 론

成無己는 北宋·聊攝 사람으로, 그에 관한 기록은 많지가 않아 다만 『醫林列傳』과 『古今醫統大全』 및 그의 저서의 몇몇 序文 및 跋文을 통해 그에 대한 언급을 살펴볼 수 있다. 그의 著書로는 『註解傷寒論』 10卷과 『傷寒明理論』 4卷이 있으며, 이 著作들은 『傷寒論』의 未發된 뜻을 闡明하였고, 아울러 方藥을 사용하는데 있어 일원화된 이론체계를 형성했으며, 辨證論治에 대한 정신을 闡述하는 데 대단한 공헌을 하였다. 또한 註解, 論證, 方論을 통해 그의 傷寒學說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가 撰成한 『註解傷寒論』은 『傷寒論』 전반에 걸쳐 註釋을 가한 최초의 註釋書로서, 그 특징은 ‘經’으로 ‘論’·‘症’·‘方’을 해석하였고 卷後에 釋音을 두었으며 原著에 충실하였고 말은 간단히 하면서도 뜻은 갖추어 나름의 註를 다는 관점을 확립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註解傷寒論』은 醫史學的으로도, 또한 『傷寒論』學術史的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 이에 『註解傷寒論』에 나타난 成無己의 學術思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傳經과 再傳經 및 過經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였다.

成無己의 『註解傷寒論』에는 傳經과 再傳經 및 過經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 註解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數를 논하자면, 傷寒의 病은 1일에 太陽, 2일에 陽明, 3일에 少陽, 4일에 太陰, 5일에 少陰, 6일에 厥陰으로 전해집니다. 6일에 이르러 傳經이 다하게 되면 7일에 마땅히 낮습니다. 7일에 낮지 않은 경우는 再傳經이라고 말합니다. 再傳經을 말하자면, 다시 太陽으로부터 傳해져서 12일이 되어 다시 厥陰에 이르러 傳經이 다하게 되면 13일에 마땅히 낮습니다. 13일에 낮지 않은 경우는 過經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전해져서 太陽의 經을 지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니, 역시 차례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²⁰⁾

즉 傳經은 傷寒으로 병들어 1일에 太陽, 2일에 陽明, 3일에 少陽, 4일에 太陰, 5일에 少陰, 6일에 厥陰으로 전해지는 과정을 말하고, 再傳經은 傳經의 과정 중에 病이 낮지 않아 7일에 다시 한 번 太陽으로부터 시작하여 12일에 厥陰으로 전해지는 과정을 말하며, 過經은 再傳經의 과정 중에 病이 낮지 않아 다시 한 번 더 전해지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註解를 더 살펴보면 傷寒 13일은 再傳經을 다하여 마땅히 풀리는 때입니다²¹⁾. 傷寒 13일에 再傳經이 다하니 過經이라 말합니다²²⁾. 13일에 낮다는 것은, 傷寒 6일에 三陰三陽을 두루 傳하고 뒤의 6일에 再傳經을 다하면 陰陽의 氣가 조화로워져 大邪의 氣가 물러나면서 낮는 것입니다.²³⁾ 라고 하였으니, 계속하여 일관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2. 半表半裏證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²⁴⁾.

仲景의 『傷寒論』에는 半表半裏證이라는 말이 없다. 다만 “傷寒五六日, 頭汗出, 微惡寒, 手足冷, 心下滿, 口不欲食, 大便硬, 脈細者, 此爲陽微結, 必有表復有裏也. 脈沉, 亦在裏也. 汗出爲陽微, 假令純陰結, 不得復有外證, 悉入在裏, 此爲半在裏半在外也. 脈雖沉緊, 不得爲少陰病, 所以然者, 陰不得有汗, 今頭汗出, 故知非少陰也, 可與小柴胡湯. 設不了了者, 得屎而解.”²⁵⁾ 의 조문에 ‘半在裏半在外’라는 문구가 그나마 유사할 뿐이다.

이에 成無己는 주해를 달면서 처음으로 半表半裏證을 제시 하였으니, 小柴胡湯證을 설명하는 “傷寒五六日, 中風, 往來寒熱,

12) 張國駿 主編, 成無己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13) 錢超塵, 傷寒論注解 元刊本及成無己考. 中國醫藥學報(9):31. 2003.

14) 黃春麗, 陳竹友, 成無己訓釋 傷寒論的特色. 福建中醫藥(1):31. 2000.

15) 田思勝, 高萍, 試論成無己注釋 傷寒論的特點與方法. 中醫文獻雜誌(1). 1999.

16) 尹桂平, 淺析成無己 注解傷寒論 學術思想對後世的影響. 長春中醫學院學報(1):20. 2004.

17) 李玉清, 注解傷寒論 釋誤考. 中醫文獻雜誌(4). 2003.

18) 李玉清, 試析成無己闡釋 傷寒論的辨證思維方法. 四川中醫(5):22. 2004.

19) 李玉清, 成無己 注解傷寒論 腑病說對後世影響簡考. 中醫藥學刊(8):22. 2004.

20)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2.

“論其數者, 傷寒之病, 一日太陽, 二日陽明, 三日少陽, 四日太陰, 五日少陰, 六日厥陰. 至六日爲傳經盡, 七日當愈. 七日不愈者, 謂之再傳經. 言再傳經者, 再自太陽而傳, 至十二日再至厥陰爲傳經盡, 十三日當愈. 十三日不愈者, 謂之過經, 言再傳過太陽之經, 亦以次而傳之也.”

21)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92.

“傷寒十三日, 再傳經盡, 當解之時也.”

22)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93.

“傷寒十三日再傳經盡, 謂之過經.”

23)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84.

“十三日愈者, 傷寒六日, 傳遍三陰三陽, 後六日再傳經盡, 則陰陽之氣和, 大邪之氣去而愈也.”

24) 이 부분은 張國駿 主編, 成無己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 207. 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25)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12.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胸中煩而不嘔, 或渴, 或腹中痛, 或脇下痞硬, 或心下悸, 小便不利, 或不渴, 身有微熱, 或欬者, 與小柴胡湯主之.”²⁶⁾의 조문에 대해 病은 表에 있기도 하고 裏에 있기도 하며 表裏의 사이에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邪氣가 表裏의 사이에 있는 것이니 半表半裏證이라고 말합니다.²⁷⁾ 라는 註解를 붙여 정확히 ‘半表半裏證’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계속하여 이 證에 대해 상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邪가 半表半裏의 사이에 있어 아직 定處가 없으니, 이 때문에 寒熱이 往來합니다. 邪가 表에 있으면 心腹이 그득하지 않고 邪가 裏에 있으면 心腹이 脹滿합니다. 지금 다만 胸脇이 苦滿함을 말하였으니 邪氣가 表裏의 사이에 있어 아직 心腹이 그득함에 이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니 말하자면 胸脇이 苦滿한 것으로 邪氣가 表裏의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默默은 고요한 것입니다. 邪가 表에 있으면 呻吟하여 不安하고, 邪가 裏에 있으면 煩悶하여 어지럽습니다. 『內經』에 이르길 “陽에서 陰으로 들어가면 靜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默默하다는 것은 邪가 表에서 裏로 傳하는 것이니 表에서 裏로 傳하는 것입니다. 邪가 表에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邪가 裏에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음식을 먹고자 않는다는 것은 邪가 表裏의 사이에 있어 반드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데에는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邪가 表에 있으면 煩하지 않고 嘔하지 않으며 邪가 裏에 있으면 煩滿하며 嘔하는데, 煩하고 嘔한다는 것은 邪가 表에서 裏로 傳하는 것입니다. 邪가 처음 裏에 들어가 아직 定處가 없으면 傳하는 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발생하는 證이 있습니다.²⁸⁾

이 외에도 成無己는 『註解傷寒論』에서 半表半裏와 관련된 설명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 그 내용들을 위치와 증상, 그리고 治法·治方·禁忌와 관련된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半表半裏의 위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太陽과 少陽의 併病은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는 것인데……²⁹⁾. 太陽은 表에 있는 것이 되고 少陽은 裏에 있는 것이 되니 곧 半表半裏證입니다.³⁰⁾ 邪가 少陽에 있다는 것은 半表半裏가 되는 것입니다.³¹⁾ 邪가 少陽에 머물러 半은 表에 있고 半은 裏에 있으면 發汗시키지 못하니, 發汗시키면 津液을 잃어 胃中이 乾燥해집니다.³²⁾

둘째, 半表半裏의 증상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病을 얻은 지 6-7일에 脈이 遲·浮·弱하고 惡風·惡寒하며 손발이 따뜻하면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어……³³⁾. 陽證이 없다는 것은 表에 熱이 없다는 것이며, 寒熱이 往來하지 않는다는 것은 半表半裏에 熱이 없다는 것이며, 그 사람이 도리어 安전하다는 것은 裏에 熱이 없다는 것입니다.³⁴⁾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게 되면 惡寒하지 않는데……³⁵⁾. 太陽과 少陽이 서로 아울러 病이 되어 오롯하게 表에 있지 않기 때문에 頭項이 다만 強痛할 뿐만 아니라 혹은 眩暈하며, 또한 아직 완전히 裏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 結胸과 같이 心下가 痞硬하니, 이는 邪가 半表半裏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³⁶⁾

지금 胸脇이 그득하고 조금 맏히며 小便이 不利하고 목마르나 嘔하지 않으며 다만 머리에 땀나고 寒熱이 往來하며 心煩한 것은 邪氣가 오하려 半表半裏의 사이에 있는 것이니, 아직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胸脇이 그득하고 조금 맏히며 寒熱하고 心煩하는 것은 邪가 半表半裏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³⁷⁾

傷寒 5-6일은 邪가 半表半裏에 있는 때이고, 嘔하면서 發熱하는 것은 邪가 半表半裏에 있다는 증거니, 이는 柴胡證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다른 藥으로 下시켰는데 柴胡證이 남아있는 者は 逆이 되지 않은 것이니 도리어 柴胡湯을 투여하면 낫습니다. 만약 下시킨 후에 邪氣가 裏로 傳해지는 경우 邪가 半表半裏에 있으면 陰陽에 모두 邪가 있는 것입니다.³⁸⁾

太陽에서 少陽으로 轉入하는 것은 이는 表邪가 裏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脇下가 단단하고 그득하며 먹을 수 없고 寒熱이 往來하는 것은 邪가 半表半裏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³⁹⁾

마지막으로 半表半裏의 治法과 治方 및 禁忌 사항을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小柴胡湯을 투여하여 半表半裏의 邪를 쫓는다⁴⁰⁾. 邪가 半表半裏의 사이에 있어 柴胡證이 되는 것은 즉 아직 裏實이 아닌데……⁴¹⁾. 邪가 表에 있으면 發汗시킬 수 있고, 邪가 半表半裏에 있

26)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87.
 27)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87.
 “病有在表者, 有在裏者, 有在表裏之間者. 此邪氣在表裏之間, 謂之半表半裏證.”
 28)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87.
 “邪在半表半裏之間, 未有定處, 是以寒熱往來也. 邪在表, 則心腹不滿, 邪在裏, 則心腹脹滿. 今言胸脇苦滿, 知邪氣在表裏之間, 未至於心腹滿, 言胸脇苦滿, 知邪氣在表裏也. 默默, 靜也. 邪在表, 則呻吟不安, 邪在裏, 則煩悶亂. 『內經』曰: 陽入之陰則靜. 默默者, 邪方自表之裏, 在表裏之間也. 邪在表則能食, 邪在裏則不能食, 不欲食者, 邪在表裏之間, 未至於必不能食也. 邪在表, 則不煩不嘔, 邪在裏, 則煩滿而嘔, 煩喜嘔者, 邪在表傳裏也. 邪初入裏, 未有定處, 則所傳不一, 故有或爲之證.”
 29)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13.
 “太陽少陽併病, 爲邪氣在半表半裏也…….”
 30)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21.
 “太陽爲在表, 少陽爲在裏, 即是半表半裏證.”
 31)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50.
 “邪在少陽, 爲半表半裏.”
 32)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51.

“以邪客少陽, 爲半在表半在裏, 則不可發汗, 發汗亡津液, 胃中乾燥.”
 33)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90.
 “得病六七日, 脈遲浮弱, 惡風寒, 手足溫, 則邪氣在半表半裏…….”
 34)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03.
 “無陽證, 爲表無熱; 不往來寒熱, 爲半表半裏無熱; 其人反靜, 爲裏無熱.”
 35)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05.
 “爲邪氣在半表半裏, 則不惡寒…….”
 36)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09.
 “太陽少陽相併爲病, 不純在表, 故頭項不但強痛而或眩暈, 亦未全入裏, 故時如結胸, 心下痞硬, 此邪在半表半裏之間也.”
 37)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11.
 “今胸脇滿, 微結, 小便不利, 渴而不嘔, 但頭汗出, 往來寒熱心煩者, 即邪氣猶在半表半裏之間, 爲未解也. 胸脇滿, 微結, 寒熱心煩者, 邪在半表半裏之間也.”
 38)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12.
 “傷寒五六日, 邪在半表半裏之時; 嘔而發熱, 邪在半表半裏之證, 是爲柴胡證具, 以他藥下之, 柴胡證不罷者, 不爲逆, 却與柴胡湯則愈. 若下後, 邪氣傳裏者, 邪在半表半裏, 則陰陽俱有邪.”
 39)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51.
 “太陽轉入少陽, 是表邪入於裏. 脇下硬滿, 不能食, 往來寒熱者, 邪在半表半裏之間.”
 40)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89.
 “與小柴胡湯, 以解半表半裏之邪.”
 41)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91.

으면 發汗시킬 수 없습니다42).

柴胡桂枝乾薑湯을 투여하여 表裏의 邪를 풀어 津液을 회복시키고 陽을 돕습니다43).

小柴胡湯을 투여하여 半表半裏의 邪를 제거합니다44).

여기서의 太陽과 少陽의 合病에 스스로 下利하는 것은 半表半裏에 있는 것이 되어 汗·下가 마땅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黃芩湯을 투여하여 半表半裏의 邪를 조화롭게 풀입니다45).

邪氣가 아직 半表半裏의 사이에 있는 것이니 小柴胡湯을 투여하여 表裏의 邪를 제거합니다46).

邪氣가 여전히 半表半裏에 있는 것이니 小柴胡湯을 투여하여 조화롭게 풀고……47).

太陽證이 없다는 것은 表證이 이미 과했다는 것이고, 柴胡證이 없다는 것은 半表半裏證이 없다는 것입니다48).

邪가 少陽에 머물러 半은 表에 있고 半은 裏에 있으면 發汗시키지 못하니, 發汗시키면 津液을 잃어 胃中이 乾燥해집니다49).

만약 이미 吐·下를 경험하여 脈이 沉·緊한 者は 邪가 腑에 陷入하여 裏實이 되는 것이고, 아직 吐·下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脈이 沉·緊한 것은 裏로 傳해지는 것이니 비록 깊어도 아직 완전히 腑에 들어가지 않고 外는 오히려 풀리지 않은 것이니 小柴胡湯을 투여하여 조화롭게 풀입니다50).

이상의 『註解傷寒論』에 나타난 半表半裏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半表半裏證은 邪氣가 表裏의 사이에 있어 아직 定處가 없는 것이다. 또한 ‘太陽少陽併病’과 ‘邪在少陽’의 경우 모두 半表半裏證으로 보았는데, 생각건대 前者의 경우는 太陽을 表로 보고 少陽을 상대적으로 裏로 보아 表裏에 모두 邪氣가 있다는 의미이고, 後者의 경우는 少陽의 위치가 半表半裏에 있다는 의미인 듯하다. 둘째, 증상들로는 原文과 脉을 같이하여 寒熱往來, 胸脇苦滿, 默默, 不欲飲食, 心煩喜嘔, 或爲之證 등을 언급하였고, 경우에 따라 病을 얻은 지 6-7일에 脈이 遲·浮·弱하고 惡風寒하며 손발이 따뜻하다고 하고, 또는 惡寒하지 않는다고 하며, 또는 心下가 痞硬하다고 하고, 또는 胸脇이 그득하고 조금 맺히며 小便이 통하지 않고 목마르나 嘔하지 않으며 다만 머리에 땀난다고

하며, 또는 嘔하면서 發熱한다고 하고, 또는 脇下가 단단하고 그득하며 먹을 수 없다고 하였다. 셋째, 治法으로는 공통적으로 和解를 제시하였고, 治方으로는 대개의 경우 小柴胡湯을 주로 하며 경우에 따라 柴胡桂枝乾薑湯과 黃芩湯을 사용하였다. 넷째, 주의 사항으로 發汗시키는 것이 不可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發汗시키면 津液을 잃어 胃中이 乾燥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後代에 들어와 이러한 半表半裏證은 더욱 세분화 되고 구체화 되었으니, 『醫學入門』을 통하여 그 변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半表裏는 지극히 알기 어려우니, 몸의 앞뒤를 말한 것이 있고 몸의 위아래를 말한 것이 있으며 太陽과 陽明의 사이를 말한 것이 있다. 小柴胡湯이 少陽의 半表裏를 푸는 것은, 몸의 뒤는 太陽이 되고 몸의 앞은 陽明이 되는데 少陽은 중간에 있어 혹은 앞을 따르고 혹은 뒤를 따라 寒熱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이는 몸의 앞뒤로 말한 것입니다. 五苓散이 膀胱의 半表裏를 分利하는 것은, 膀胱은 寒水로서 陽明燥金과 가까워 水가 많으면 寒하고 燥가 많으면 熱하기 때문에 또한 寒熱이 往來하니, 이는 太陽과 陽明의 사이로써 말한 것입니다. 理中湯이 吐瀉가 안정되지 못함을 치료하는 것은 위아래의 半表裏이니, 몸의 上·中·下로써 말한 것입니다51). 즉 李梴은 半表裏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하였으니, 몸의 앞뒤를 말한 것은 小柴胡湯으로 치료하고 몸의 위아래를 말한 것은 理中湯으로 치료하며 太陽과 陽明의 사이를 말한 것은 五苓散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3. 陰陽의 辨證방법으로 原文을 이해하였다52).

成無已는 『傷寒論』의 原文을 이해함에 있어 陰陽의 辨別方法을 이용하였으니,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陽이 부족하면 陰氣가 위로 陽中에 入하여 惡寒이 되니 陰이 勝하면 寒하고, 陰이 부족하면 陽氣가 下陷하여 陰中에 들어가 發熱이 되니 陽이 勝하면 熱합니다53).

땀을 내어 陽을 공격하여 津液을 亡失하여 陽氣가 부족한 것을 ‘守空’이라 말합니다54).

弱脈은 衛氣가 微한 것이니 陽氣가 부족한 것이고, ……陽氣가 안으로 微하면 가슴 속이 비록 주리나 虛滿하여 음식을 섭취하지 못합니다55).

太陽病에 發汗으로 인하여 마침내 汗瀉가 그치지 않고 惡風하는 것은 陽氣가 부족한데 發汗으로 인하여 陽氣가 더욱 虛해져 皮膚가 固密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四肢가 조금 당기고 屈伸이 어려운 것은 陽을 잃고 液이 빠진 것입니다56).

“邪在半表半裏之間，爲柴胡證，卽未作裏實……。”
42) 成無已.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09.
“邪在表，則可發汗；邪在半表半裏，則不可發汗。”
43) 成無已.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11.
“與柴胡桂枝乾薑湯，以解表裏之邪，復津液而助陽也。”
44) 成無已.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12.
“與小柴胡湯，以除半表半裏之邪。”
45) 成無已.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21.
“此太陽少陽合病，自下利，爲在半表半裏，非汗下所宜，故與黃芩湯以和解半表半裏之邪。”
46) 成無已.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40.
“邪氣猶在半表半裏之間，與小柴胡湯，以去表裏之邪。”
47) 成無已.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41.
“邪氣猶在半表半裏，與小柴胡湯以和解之…….”
48) 成無已.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47.
“無太陽證，爲表證已罷；無柴胡證，爲無半表半裏之證。”
49) 成無已.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51.
“以邪客少陽，爲半在表半在裏，則不可發汗，發汗亡津液，胃中乾燥。”
50) 成無已.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51.
“若已經吐下，脈沉緊者，邪陷入腑爲裏實；尙未經吐下，而脈沉緊爲傳裏，雖深，未全入腑，外猶未解也，與小柴胡湯以和解之。”

51) 李梴 著.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 350.
52) 이 부분은 張國駿 主編. 成無已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p. 205-206. 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53) 成無已.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2.
“陽不足，則陰氣上入陽中，爲惡寒者，陰勝則寒矣；陰不足，陽氣下陷入陰中，爲發熱者，陽勝則熱矣。”
54) 成無已.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2.
“發汗攻陽，亡津液，而陽氣不足者，謂之守空。”
55) 成無已.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28.
“衛爲陽，榮爲陰. 弱者，衛氣微，陽氣不足也……陽氣內微，心內雖飢，飢而虛滿不能食也。”
56) 成無已.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59.
“太陽病，因發汗，遂汗瀉不止而惡風者，爲陽氣不足，因發汗，陽氣益虛而皮膚不固也. ……四肢微急，難以屈伸者，亡陽而脫液也。”

脈이 浮하고 自汗이 나며 小便이 數하고 惡寒하는 것은 陽氣가 不足한 것입니다. 心煩·脚躄急은 陰氣가 不足한 것입니다. ……桂枝湯을 복용하여 바로 厥하고 咽中이 마르며 煩燥하고 吐逆하는 者は 먼저 甘草乾薑湯을 지어 그 陽氣를 회복시키고, 厥이 나아 발이 따뜻해져 이에 芍藥甘草湯을 투여하여 그 陰血을 불러주면 脚脛이 펴집니다⁵⁷.

發汗을 過多하게 하면 陽을 잃습니다. 陽은 氣를 胸中에서 받는데 胸中の 陽氣가 不足하기 때문에 病으로 손을 깎지 끼고 가슴을 덮습니다⁵⁸.

發汗을 많이 시켜 陽을 잃어 胸中の 陽氣가 不足하면 病人이 손을 깎지 끼고 스스로 가슴을 덮습니다. ……耳聾은 陽氣가 虛하고 精氣가 위로 귀에 通하지 못한 때문입니다⁵⁹.

그 사람의 骨節이 육신거리는 것은 陰氣가 不足하기 때문입니다⁶⁰.

이상에서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註解傷寒論』에 나타난 成無己의 陰陽 인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惡寒과 發熱의 기전에 대해 陽不足과 陰不足으로 인한 陰陽의 偏勝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잘못 發汗시키면 陽氣가 不足하게 되는데, 陽氣가 부족하면 지키는 기능이 비게 되어 또 다시 汗이 세어 나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脈과 陽氣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弱脈은 衛氣가 微한 것으로, 이는 陽氣가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弱脈이 나타나면 陽氣가 不足할 때 나타나는 “飢而虛滿不能食”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넷째, 桂枝加附子湯證을 太陽病에서 陽氣虛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과 기전으로 설명하였다. 다섯째, 陽氣不足과 陰氣不足 및 치료에 있어서 陽氣를 우선으로 한 점을 말하였고, 여섯째, “叉手冒心” 증상의 원인을 陽氣不足으로 보았고, 또 耳聾도 陽氣虛와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일곱째, 骨節이 육신거리는 증상을 陰氣不足이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4. 亡陽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혼용하였다⁶¹.

成無己는 『傷寒論』을 註解함에 있어 ‘亡陽’의 개념을 여러 곳에서 표출하였다. 먼저 亡陽으로 인한 결과 및 亡陽과 관련된 증상을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發汗시키면 表가 虛해져 陽을 잃고, 下시키면 裏가 虛해져 血을 잃습니다. 주워서 떠는 者は 陽氣가 미약한 것이고, 脈이 微細한 者は 陰血이 미약한 것입니다⁶².

發汗을 過多하게 하면 陽을 잃습니다. 陽은 氣를 胸中에서 받는데 胸中の 陽氣가 不足하기 때문에 病으로 손을 깎지 끼고 가슴을 덮습니다⁶³.

發汗을 많이 시켜 陽을 잃어 胸中の 陽氣가 不足하면 病人이 손을 깎지 끼고 스스로 가슴을 덮습니다. 醫師가 外證을 보고 陽氣가 不足함을 알 수 있고, 또 시험 삼아 欸하게 하여도 바로 欸하지 않는다는 것은 耳聾이니 陽氣가 虛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耳聾은 陽氣가 虛하고 精氣가 위로 귀에 通하지 못한 때문입니다⁶⁴.

發汗시키면 陽을 잃어 胃中이 虛冷해집니다⁶⁵.

만약 發汗시키면 반드시 陽을 잃어 躁합니다⁶⁶.

이상의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成無己는 亡陽으로 인한 결과 및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하였으니, 振寒, 叉手冒心, 耳聾, 胃中虛冷, 亡陽而躁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成無己는 亡陽의 원인에 대해 일관되게 發汗의 過多가 그 원인임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太陽病에 發汗이 너무 많으면 陽을 잃습니다⁶⁷.

心下가 悸하고 눈이 아찔하며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關動하며 振振하여 넘어지려 하는 것은 汗이 나서 陽을 잃은 것입니다⁶⁸.

汗을 내게 하면 表가 虛해져 陽을 잃습니다⁶⁹.

心氣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正氣가 內에서 虛해져 氣가 배꼽 위에서 動합니다. 心은 陽이 되니 發汗시켜 陽을 잃으면 心氣가 더욱 손상되어……⁷⁰.

表가 熱하고 裏가 寒하여 뜻은 따뜻함을 얻고자 하는데 만약 도리어 發汗시키면 陽을 잃고 陰만 홀로 하기 때문에 추어 떨며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⁷¹.

汗이 많으면 陽을 잃습니다⁷².

또한, 亡陽에 의해 나타나는 脈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다.

微는 亡陽이 되고 濇은 血이 없는 것이니, 마땅히 汗을 내어서는 안 되는데 억지로 투약하여 汗을 내게 한 경우는 陽氣를 미

57)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62-63.
“脈浮, 自汗出, 小便數而惡寒者, 陽氣不足也. 心煩, 脚躄急者, 陰氣不足也. ……得之便厥, 咽中乾, 煩燥吐逆者, 先作甘草乾薑湯, 復其陽氣. 得厥愈足溫, 乃與芍藥甘草湯, 益其陰血, 則脚脛得伸.”
58)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77.
“發汗過多亡陽也. 陽受氣於胸中, 胸中陽氣不足, 故病叉手自冒心.”
59)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81.
“發汗多亡陽, 胸中陽氣不足者, 病人手叉自冒心. ……耳聾者, 陽氣虛, 精氣不得上通於耳故也.”
60)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29.
“其人骨節疼者, 陰氣不足也.”
61) 이 부분은 張國駿 主編. 成無己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 206. 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62)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75.
“發汗則表虛而亡陽; 下之則裏虛而亡血. 振寒者, 陽氣微也; 脈微細者, 陰血弱也.”

63)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77.
“發汗過多亡陽也. 陽受氣於胸中, 胸中陽氣不足, 故病叉手自冒心. 心下悸欲得按者, 與桂枝甘草湯, 以調不足之氣.”
64)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81.
“發汗多亡陽, 胸中陽氣不足者, 病人手叉自冒心. 師見外證知陽氣不足也; 又試令欸而不即欸者, 耳聾也, 知陽氣虛明矣. 耳聾者, 陽氣虛, 精氣不得上通於耳故也.”
65)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82.
“發汗亡陽, 胃中虛冷也.”
66)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90.
“若發汗則必亡陽而躁.”
67)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50.
“太陽病, 發汗太多, 則亡陽.”
68)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84.
“心下悸, 頭眩, 身關動, 振振欲擗地者, 汗出亡陽也.”
69)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86.
“汗之則表虛而亡陽.”
70)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190-191.
“心氣不治, 正氣內虛, 氣動於膈之上也. 心爲陽, 發汗亡陽, 則愈損心氣, ……”
71)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191-192.
“表熱裏寒, 意欲得溫, 若反發汗, 亡陽陰獨, 故寒慄不能自還.”
72)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93.
“汗多則亡陽.”

약하게 하여 陰氣가 위로 陽中에 들어가 惡寒하게 되니, 때문에 陽이 미약하면 惡寒한다고 말합니다⁷³⁾.

衛는 陽이 되고 衛가 微한 것은 亡陽이 됩니다. 脈이 微한 것은 衛氣가 성긴 것인데 ……⁷⁴⁾.

寸이 微한 것은 亡陽이 되고 尺이 緊한 것은 陰勝이 됩니다⁷⁵⁾.

脈이 微한 것은 陽을 잃은 것이 되고 澁한 것은 血을 잃은 것이 됩니다. 下利하고 嘔하며 땀나는 것은 陽을 잃고 血을 잃은 것입니다⁷⁶⁾.

이상에서 나타나듯이 微脈 혹은 寸脈微의 경우 망양이라는 병리적 기전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아래의 내용에서는 亡陽의 또 다른 의미를 표출하고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太陽病에 發汗으로 인하여 마침내 汗瀉가 그치지 않고 惡風하는 것은 陽氣不足이 되니, 發汗으로 인하여 陽氣가 더욱 虛해져 皮膚가 固密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內經』에 이르길 “膀胱은 首都의 官으로 津液을 저장하였다가 氣化가 되면 내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小便이 困難한 것은 땀이 나 津液을 잃고 陽氣가 虛弱해져 施化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四肢는 諸陽의 本입니다. 四肢가 조금 당기고 屈伸이 어려운 것은 陽을 잃고 液이 빠진 것입니다. 『鍼經』에 이르길 “液이 빠지면 관절의 屈伸이 부드러워지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桂枝加附子湯을 투여하여 經을 따뜻하게 하고 陽을 회복시킵니다⁷⁷⁾.

크게 땀나면 熱이 마땅히 제거될 터인데, 熱이 도리어 제거되지 않는 것은 陽을 잃은 것입니다. 안으로 拘急하고 下利하는 것은 寒이 裏에 甚한 것입니다. 四肢가 육신거리고 厥逆하면서 惡寒하는 者는 寒이 表에 甚한 것입니다. 四逆湯을 투여하여 陽을 회복시키고 寒을 흩뜨립니다⁷⁸⁾.

이상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亡陽의 원인이 發汗過多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단순히 陽氣가 손상된 陽虛證의 의 경우에도 亡陽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덧붙여 『醫學入門』에서는 “무릇 發汗시켜도 땀이 나지 않는 것을 亡陽이라 하고, 땀이 많아 그치지 않는 것을 또한 亡陽이라고 한다⁷⁹⁾.”라고 하였고, 程應旂는 『傷寒論後條辨』에서 發汗을 많이 시켜 亡陽이 되긴 하나 陽이 주관하는 부분에 따라 그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르니 衛外之陽, 腎中之陽, 膻中之陽, 胃中之陽으로 세분하여 그 손상된 바를 따라 치료할 것을 역설하였으니⁸⁰⁾, 註解를 살펴봄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5. 下利便膿血을 寒·熱의 屬性으로 구분하였다⁸¹⁾.

‘下利便膿血’에 대해 成無己는 그 원인을 協熱과 裏寒으로 나누어 감별하고 있다. 그는 “少陰病, 下利便膿血者, 桃花湯主之.”⁸²⁾ 조문에 대한 註解를 달면서 陽病에 下利하고 膿血便을 보는 者는 熱을 낀 것이고, 少陰病에 下利하고 膿血便을 보는 者는 下焦가 約束하지 못하면서 裏가 寒한 것입니다. 桃花湯을 투여하여 굳게 하고 寒을 내려 흩뜨립니다⁸³⁾. 라고 하였으니, 陽病의 下利便膿血은 協熱인 熱性으로 보았고 少陰病의 下利便膿血은 裏寒인 寒性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下利膿血에 대해 熱性和 寒性을 구분하고 있으나, 病證의 특성상 주로 熱證으로 인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른 註解에서도 보이니,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下시킨 후에 脈의 數함이 풀리지 않으면서 大便을 보지 못하는 者는 이는 熱이 下泄되지 못하고 下에 血이 쌓여 瘀血이 된 것입니다. 만약 下시킨 후에 脈의 數함이 풀리지 않으면서 下利가 그치지 않는 것은 熱이 下泄되는데 血을 다그쳐 下行케 하니 반드시 膿血便을 볼 것입니다⁸⁴⁾.

7일에 이르러 傳經이 다하여 熱이 제거되면 낫고, 熱이 제거되지 않은 者는 熱氣가 有餘하여 안으로 厥陰의 血을 치게 되니 그 후에 반드시 膿血便을 봅니다⁸⁵⁾.

가령 手足이 따뜻한 者는 熱氣가 맺히지 않고 下行하여 協熱利를 만들어 下重하고 膿血便을 봅니다⁸⁶⁾.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주로 協熱로 인한 下利便膿血을 설명하였다.

6. 『傷寒論』과 臟腑와의 관계

成無己는 『傷寒論』과 臟腑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첫째, 『傷寒論』을 臟腑의 生理·病理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⁸⁷⁾

仲景의 『傷寒論』에서 臟腑와 관계된 내용이 적지 않으나, 다만 心下痞·心中悸·熱結膀胱 등 부위에 관한 설명들이 대다

73)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9.
“微爲亡陽, 瀉則無血, 不當汗而強與汗之者, 令陽氣微, 陰氣入腸中, 則惡寒, 故曰陽微則惡寒.”
74)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30.
“衛爲陽, 微爲亡陽. 脈微者, 衛氣疏, ……”
75)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31.
“寸微爲亡陽, 尺緊爲陰勝.”
76)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68.
“脈微爲亡陽, 澁爲亡血. 下利嘔而汗出, 亡陽亡血也.”
77)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59.
“太陽病, 因發汗, 遂汗瀉不止而惡風者, 爲陽氣不足, 因發汗, 陽氣益虛而皮膚不固也. 『內經』曰: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出. 小便難者, 汗出亡津液, 陽氣虛弱, 不能施化. 四肢者, 諸陽之本也. 四肢發急, 難以屈伸者, 亡陽而脫液也. 『鍼經』曰: 液脫者, 骨屬屈伸不利. 與桂枝加附子湯, 以溫經復陽.”
78)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75.
“大汗出, 則熱當去; 熱反不去者, 亡陽也. 內拘急下利者, 寒甚於裏. 四肢疼, 厥逆而惡寒者, 寒甚於表. 與四逆湯, 復陽散寒.”
79) 李誕 著.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6. p. 340.

80) 劉渡丹 主編. 傷寒論辭典. 서울. 醫聖堂. p. 41.
81) 이 부분은 張國駿 主編. 成無己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p. 206-207. 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82)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60.
83)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60.
“陽病下利便膿血者, 協熱也; 少陰病下利便膿血者, 下焦不約而裏寒也. 與桃花湯, 固下散寒.”
84)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49.
“下後, 脈數不解, 而不大便者, 是熱不得泄, 畜血於下, 爲瘀血也. 若下後, 脈數不解而下利不止者, 爲熱得下泄, 迫血下行, 必便膿血.”
85)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73.
“至七日傳經盡, 熱除則愈; 熱不除者, 爲熱氣有餘, 內搏厥陰之血, 其後必大便膿血.”
86)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203.
“設手足溫者, 熱氣不結而下行, 作協熱利, 下重便膿血也.”
87) 이 부분은 張國駿 主編. 成無己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p. 207-210. 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수이다. 그리고 臟腑의 生理와 病理에 관한 내용은 많지 않으니 조문을 살펴보면

傷寒腹滿讖語, 寸口脈浮而緊, 此肝乘脾也……88).

傷寒發熱, 番番惡寒, 大渴欲飲水, 其腹必滿, 自汗出, 小便利, 其病必解, 此肝乘肺也……89).

陽明之爲病, 胃家實也90).

趺陽脈浮而濇, 浮則胃氣強……91).

若臍上築者, 腎氣動也……92).

등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成無己는 『傷寒論』을 註解함에 있어 臟腑의 生理·病理적 觀點을 매우 중요시 하였으니, 각각의 註解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燒針으로 發汗시키면 陰血이 손상되고 心氣를 驚動시키니다. 針處가 寒을 당하면 氣가 모여 核을 이룹니다. 心氣가 驚을 因하여 虛해지고 腎氣가 寒氣를 타고 動하면 發하여 奔豚이 됩니다. ……腎氣가 위로 心을 타고자 하기 때문에 그 氣가 少腹으로부터 心을 上衝합니다93).

汗은 心의 液입니다. 發汗시킨 후에 臍下에 悸가 있는 것은 心氣가 虛하여 腎氣가 發動한 것입니다. 腎의 積을 일러 말하길 奔豚이라 합니다. 發作하면 少腹을 따라 위로 心下에 이르는 것은 腎氣가 逆하여 위로 올라가 心을 갈보려는 것입니다94) 라고 하여, 奔豚을 心氣가 虛한데 腎氣가 上逆하여 생긴 것으로 보았고, 汗은 心의 液이니 汗家를 거듭 發汗시키면 心이 虛하여 恍惚하여 心亂하고, 땀을 잃으면 水가 없기 때문에 小便을 마침에 생식기가 육신거립니다95).

傷寒에 脈이 浮한 것은 邪가 表에 있기 때문인데 醫師가 火治로 劫迫하여 發汗시켜 땀이 많이 나는 것은 그 陽을 잃는 것입니다. 汗은 心의 液입니다. 陽을 잃으면 心氣가 虛해지고……96). 라고 하여, 汗은 心之液이며 發汗으로 心이 虛弱해짐을 말하였으며, 여기서의 온 몸이 육신거리고 아픈 것은 傷寒客熱 때문이 아니요, 濕邪가 經에 있어 그렇게 됨을 아는 것이요, 脾는 濕을 싫어하는데 濕에 傷하면 脾가 病들어 色이 나타나니, 이 때문에 몸이 누렇게 되는 것은 그 누런색이 연기에 그을린 것처럼 되는 것이 正黃色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97).

發汗을 마쳐 몸과 눈이 누렇게 된 者는 風氣는 제거되고 濕氣가 남는 것입니다. 脾는 濕을 싫어하는데 濕氣가 안에 붙어 脾色이 밖으로 奪하면 몸과 눈이 누렇게 됩니다98).

라고 하여, 脾惡濕과 發黃의 기전에 대해 말하였고,

胃는 十二經의 主가 되고, 脾는 水穀을 다스려 계집종과 같이 낮은 臟이 됩니다. ……이 湯에서 이른바 越婢라는 것은 脾氣를 發越시켜 津液을 通行시키는 것입니다99).

建中은 脾를 세우는 것입니다100) 라고 하여, 脾의 觀點에서 方解를 하였으며, 腹滿·讖語는 脾胃의 疾病입니다. 脈이 浮하면서 緊한 것은 肝脈입니다. 脾病에 肝脈이 나타났으니 木이 行하여 土를 乘한 것입니다101) 라고 하여, 肝脾의 기능 실조에 대해 말하였고, 脾가 虛하여 腎氣가 動하는 者는 臍上이 치면서 됩니다102). 大病이 나온 후에 脾胃의 氣가 虛하여 腎水를 制約할 수 없으면 水가 下焦에 넘쳐 허리 아래가 붓게 됩니다103) 라고 하여, 脾腎의 기능 실조에 대해 말하였으며, 傷寒에 表가 풀리지 않고 心下에 水飲이 있으면 水寒이 相搏하여 肺寒하고 氣逆하기 때문에 乾嘔·發熱하며 欬합니다. 『鍼經』에 이르길 “形이 차갑고 冷한 것을 마시면 肺를 傷합니다. 그 兩寒에 相感되어 가운데와 밖이 모두 傷하였기 때문에 氣가 逆하여 上行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말한 것입니다104).

喘은 肺의 疾病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 喘하는 者는 冷水를 마셔 肺를 傷한 것이고, 찬물로 씻어서 喘하는 者는 形이 차가워져 肺를 傷한 것입니다105) 라고 하여, 欬·喘이 肺의 病症임을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傷寒發熱, 番番惡寒, 大渴欲飲水, 其腹必滿, 自汗出, 小便利, 其病必解, 此肝乘肺也, 名曰橫, 刺期門.”106)의 조문에 대한 註解에서 傷寒에 發熱하고 오싹오싹 惡寒하는 것은 肺病입니다. 크게 목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은 肝氣가 勝한 것입니다. ……傷寒에 물을 마시고자 하는 者는 낮고, 만약 낮지 않고 腹滿한 者는 이는 肝이 行하여 肺를 乘하여 水가 行하지 못한 것입니다107) 라고 하여, 肺主皮毛와 肝肺의 기능실조에 대해 말

寒客熱也, 知濕邪在經而使之, 脾惡濕, 濕傷, 則脾病而色見, 是以身發黃者, 爲其黃如烟熏, 非正黃色也.”

- 88)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94.
- 89)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95.
- 90)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26.
- 91)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45.
- 92)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85.
- 93)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99.
“燒針發汗, 則損陰血, 而驚動心氣. 針處被寒, 氣聚而成核. 心氣因驚而虛. 腎氣乘寒氣而動, 發爲奔豚. ……腎氣欲上乘心, 故其氣從少腹上衝心也.”
- 94)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77.
“汗者, 心之液. 發汗後, 臍下悸者, 心氣虛而腎氣發動也. 腎之積, 名曰奔豚. 發則從少腹上至心下, 爲腎氣逆欲上凌心.”
- 95)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85.
“汗者心之液, 汗家重發汗, 則心虛恍惚心亂, 奪汗則無水, 故小便已, 陰中疼.”
- 96)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97.
“傷寒脈浮, 實邪在表, 醫以火劫發汗, 汗大出者, 亡其陽. 汗者, 心之液. 亡陽則心氣虛 ……”
- 97)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51.
“身黃如橘子色者, 陽明瘧熱也. 此身色如以熏黃, 卽非陽明瘧熱. 身黃發熱者, 梔子柏皮湯主之, 爲表裏有熱, 則身不疼痛. 此一身盡瘧, 非傷
- 98)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49.
“發汗已, 身目爲黃者, 風氣去濕氣在也. 脾惡濕, 濕氣內着, 脾色外奪者, 身目爲黃.”
- 99)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62.
【處方】桂枝二越婢一湯方の註解 “胃爲十二經之主, 脾治水穀爲卑臟者脾. ……是湯所以謂之越婢者, 以發越脾氣, 通行津液.”
- 100)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91.
【處方】小建中湯方の註解 “建中者, 建脾也.”
- 101)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95.
“腹滿讖語者, 脾胃實也. 浮而緊者, 肝脈也. 脾病見肝脈, 木行乘土也.”
- 102)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85.
“脾虛腎氣動者, 臍上築動.”
- 103)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88.
“大病差後, 脾胃氣虛. 不能制約腎水, 水溢下焦, 腰以下爲腫也.”
- 104)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70.
“傷寒表不解, 心下有水飲, 則水寒相搏, 肺寒氣逆, 故乾嘔發熱而欬. 『鍼經』曰: 形寒飲冷則傷肺. 以其兩寒相感, 中外皆傷, 故氣逆而上行, 此之謂也.”
- 105)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81.
“喘, 肺疾. 飲水多喘者, 飲冷傷肺也; 以冷水澆洗而喘者, 形寒傷肺也.”
- 106)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95.
- 107)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95.

하였다.

둘째, 少陰病을 腎의 病症으로 일정부분 인식하였다¹⁰⁸⁾. 본문을 살펴보면 少陰病을 인식함에 있어 곳곳에서 腎과 관계된 註解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註解들을 모아 成無己의 사상을 역으로 추정해 보았다.

먼저 腎이 骨節을 주하는 것을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少陰은 腎水이면서 骨節을 주하니……¹⁰⁹⁾.

腎은 水를 주하는데 腎이 病들어 水를 제재할 수 없으면 水飲이 머물러 水氣가 뭉치니¹¹⁰⁾.

少陰은 腎水입니다. 靑은 肝色입니다. 自利하고 色이 푸른 것은 肝邪가 腎을 이긴 것입니다. ……腎에 實邪가 쌓였기 때문에 반드시 心下가 아프고 입이 乾燥한 것이니 大承氣湯을 투여하여 實邪를 내립니다¹¹¹⁾.

한편, 成無己는 少陰病의 自利와 渴에 대한 원인을 腎虛水燥로 보고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自利하고 목마르지 않은 者는 寒이 中焦에 있어 太陰에 속하는데, 여기서는 自利하면서 목말라 寒이 下焦에 있는 것이 되니 少陰에 속합니다. 腎이 虛하여 水가 燥하니 목말라 水를 당겨 스스로 救하고자 합니다¹¹²⁾.

또한, 少陰病의 口燥·咽乾의 원인에 대해 腎水乾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少陰病을 얻은 지 2-3일에 邪氣가 아직 깊이 들어가지 않은 때에 문득 口燥·咽乾이 생기는 것은 이는 邪熱이 이미甚하여 腎水가 마른 것이니 급히 大承氣湯을 투여하여 下시켜 腎을 온전하게 합니다¹¹³⁾.

한편, 소음병이 낫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신기의 단절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니, 소음병과 신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腎은 生氣의 源이고 呼吸의 門입니다. 少陰病의 6-7일에 낫지 않으면서 호흡이 높은 者는 生氣가 斷絶된 것입니다¹¹⁴⁾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성무기는 少陰病을 腎의 病症으로 일정부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太陰病을 脾의 病症으로 일정부분 인식하였다¹¹⁵⁾. 성

무기는 “太陰中風, 四肢煩疼, 陽微陰澁而長者, 爲欲愈.”¹¹⁶⁾의 조문에 대해 太陰은 脾이니 四末을 경영하는 것을 주합니다. 太陰中風에 四肢가 煩疼한다는 것은 風淫으로 四肢가 병든 것입니다¹¹⁷⁾ 라고 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太陰은 脾’라는 견해를 밝혀 太陰病을 脾의 病症으로 일정부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腑病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¹¹⁸⁾.

腑病은 『註解傷寒論』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하나는 邪氣가 陽明胃腸에 들어간 腑病이고 다른 하나는 六經病의 邪氣가 經을 따라 상응하는 腑로 들어간 경우를 뜻한다.

1) 邪氣가 陽明胃腸에 들어간 것이 腑病이다.

陽明은 胃입니다. 邪가 太陽經으로부터 傳해져서 腑에 들어간 것을 太陽陽明이라 말합니다¹¹⁹⁾. 邪가 陽明經으로부터 傳해져서 腑에 들어간 것을 正陽陽明이라 말합니다¹²⁰⁾. 邪가 少陽經으로부터 傳해져서 腑에 들어간 것을 少陽陽明이라 말합니다¹²¹⁾ 라고 하여, 三陽經으로부터 陽明胃腸에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다.

2) 六經病의 邪氣가 經을 따라 상응하는 腑로 들어간 것이 腑病이다.

太陽은 膀胱經입니다. 太陽經의 邪熱이 풀리지 않고 經을 따라 腑로 들어가면 膀胱에 熱이 맺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미친 것 같은 것은 아직 狂에는 이르지 않고 다만 편안하지 않은 것입니다¹²²⁾. 太陽은 經입니다. 膀胱은 腑입니다. 이는 太陽病이 經을 따라 腑에 들어간 것입니다¹²³⁾ 라고 하여, 太陽病의 경우밖에 찾아볼 수 없지만, 經을 따라 腑에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註解傷寒論』의 내용에 있어 특이할 만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傳經과 再傳經 및 過經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였다. 半表半裏證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陰陽의 辨證방법으로 原文을 이해하였다. 亡陽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혼용하였으니, 하나는 發汗過多로 인한 亡陽이요, 또 다른 하나는 陽氣가 손상된 陽虛證의 亡陽이다. 下利便膿血을 寒·熱의 屬性으로 구분하였다. 『傷寒論』을 臟腑의 生理·病理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少陰病을 腎의 病症으로 일부 인식하였고 太陰病은 脾의 病症으로 일부 인식하였으며, 腑病에 있어서 邪氣가 陽明胃腸으로 들어

“傷寒發熱, 蓄蓄惡寒, 肺病也. 大渴欲飲水, 肝氣勝也. ……傷寒欲飲水者愈, 若不愈而腹滿者, 此肝行乘肺, 水不得行也.”

108) 이 부분은 張國駿 主編. 成無己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 208. 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109)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60. “少陰腎水而主骨節 ……”

110)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64. “腎主水, 腎病不能制水, 水飲停爲水氣.”

111)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67. “少陰, 腎水也. 靑, 肝色也. 自利色靑, 爲肝邪乘腎: ……以腎瀉實邪, 必心痛, 口乾燥也, 與大承氣湯以下實邪.”

112)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55. “自利不渴者, 寒在中焦, 屬太陰; 此自利而渴, 爲寒在下焦, 屬少陰. 腎虛水燥, 渴欲引水自救.”

113)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67. “今少陰病得之二三日, 邪氣未深入之時, 便作口燥咽乾者, 是邪熱已甚, 腎水乾也, 急與大承氣湯下之, 以全腎也.”

114)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 157-158. “腎爲生氣之源, 呼吸之門. 少陰病六七日不愈而息高者, 生氣斷絕也.”

115) 이 부분은 張國駿 主編. 成無己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 208. 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116)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53.

117)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53. “太陰, 脾也, 主營四末. 太陰中風, 四肢煩疼者, 風淫末疾也.”

118) 이 부분은 張國駿 主編. 成無己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 210. 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119)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26. “陽明胃也. 邪自太陽經傳之入腑者, 謂之太陽陽明.”

120)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26. “邪自陽明經傳入腑者, 謂之正陽陽明.”

121)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26. “邪自少陽經傳之入腑者, 謂之少陽陽明.”

122)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93. “太陽, 膀胱經也. 太陽經邪熱不解, 隨經入腑, 爲熱結膀胱, 其人如狂者, 爲未至於狂, 但不寧爾.”

123) 成無己.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01. “太陽, 經也. 膀胱, 腑也. 此太陽隨經入腑者也.”

간 腑病과 經을 따라 상응하는 腑로 들어간 腑病의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참고문헌

1. 변성희, 김상찬 옮김. 圖說 傷寒論. 서울, 전파과학사. 2006.
2. 李旻 著.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6.
3. 張國駿 主編. 成無己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4. 박병희 譯. 臨床應用 傷寒論解說. 의방출판사. 2004.
5. 尹桂平. 淺析成無己 注解傷寒論 學術思想對後世的影響. 長春中醫學院學報 1: 20, 2004.
6. 李玉清. 試析成無己闡釋 傷寒論的辨證思維方法. 四川中醫5: 22, 2004.
7. 李玉清. 成無己 注解傷寒論 腑病說對後世影響簡考. 中醫藥學刊 8: 22, 2004.
8. 劉渡丹 主編. 傷寒論辭典. 서울, 醫聖堂. 2004.
9. 錢超塵. 傷寒論注解 元刊本及成無己考. 中國醫藥學報 9: 31, 2003.
10. 李玉清. 注解傷寒論 釋誤考. 中醫文獻雜誌 4 2003.
11. 趙學俊 編譯. 傷寒貫珠集. 대전, 주민출판사. 2003.
12. 이원철, 김지형 編著. 傷寒疎解. 서울, 정담. 2003.
13. 民族醫學研究所 古典研究室 譯. 傷寒論釋義. 서울, 여강출판사. 2001.
14. 黃春麗, 陳竹友 成無己訓釋 傷寒論的特色. 福建中醫藥 1: 31, 2000.
15. 尹暢烈, 申榮日, 金善鎬 編譯. 柯氏傷寒論. 대전, 주민출판사. 1999.
16. 田思勝, 高萍. 試論成無己注釋 傷寒論的特點與方法. 中醫文獻雜誌 1, 1999.
17. 張仲景 著. 金容沃 解題. 註解傷寒論十卷. 서울, 통나무. 1996.
18. 成無己 注. 注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9. 이종화 編著. 傷寒論註釋. 서울, 계축문화사. 1995.
20. 崔達永 編著. 傷寒論釋講. 서울, 대성문화사. 1995.
21. 한국한의학사 재정립. 한국한의학연구소. 1995.